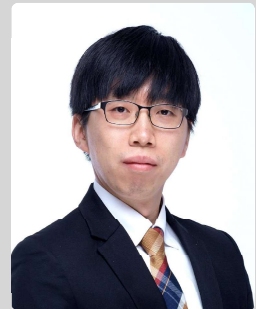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여 한 솔

대한전공의 노동조합 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부회장
boyzone007@naver.com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교육생이다. 올바른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일관성 있는 보건정책을 수립할 것과 정당한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개선을 요구하던 첫 번째 사건이 1971년 국립의료원 전공의들의 집단 투쟁이었다. 잇따라 발생한 전공의 투쟁의 결과물로 처음으로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련의제도심의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채 10년이 가지 못한 뒤 이 위원회는 정치적 목적으로 폐지됐다.

이후 크고 작은 불합리한 전공의들에 대한 잇따른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다시 정부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16년 전공의법 신설을 통한 대한민국 법령이 인정하는 오늘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그 와중 1998년 전문의 수련제도와 수련내용의 내실화를 비롯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의사단체의 개혁과 발전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의사상 정립을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설립되었

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6년 전공의 노동조합(이하, 전공의 노조)도 잇달아 설립되었다.

딱딱한 전공의들의 짧은 역사 이야기를 일일이 언급하는 이유는 수십 년째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현실과 2016년 전공의법 제정 이후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법령 미준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다. 물론 여러 선배의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노력의 손길들로 법령에서 명시하는 올바른 수련환경은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편법과 교묘한 수단을 동원한 위법 사안들은 어렵지 않게 수련병원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전공의 개개인이 겪는 부당한 처사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쩌면 전공의 노조는 이러한 부당한 사례들에 적극적으로 단체적 대응을 위해 노동삼권을 보장받아 병원 측과 교섭할 수 있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본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2006년 설립 이후로 이렇다 할 노조의 활동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존재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없다면 죽은 조직이나 마찬가지이다. 현재 전공의 노조에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현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앞으로 전공의가 될 수 있는 의대생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이다. 시대를 거치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사회 곳곳과 개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아 현직 전공의들이 참여가 아직은 미진한 것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노조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점을 다져야 할 필요도 있다.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오해를 탈피하는 것도 전공의 노조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일 것이다.

전공의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다. 전공의 노조는 전공의들의 권리 증진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다. 일차적 목표는 전공의의 근무 및 수련환경개선이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국민건강권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기도 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열악하면 이는 결국 환자의 안전 문제로 귀결된다. 왜곡된 대한민국의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수련병원과 각 학회는 열악한 의료체계에 대해 항명하지 못하고 그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라는 불합리한 지시를 법과 도덕적 책임을 때때로 무시하며 묵묵히 따르기만 했다. 물론 일선에서 코끼리를 구겨 넣는 이들은 전국의 일만육천 전공의였다. 그 결과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은 더욱 심화되며 도저히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지방병원의 모습과 좀처럼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더 나아가 의사는 의사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불편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마냥 이러한 상황을 인정해버리면 절대로 변하는 것은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의 선배들이 전공의 신분의 해임과 군대 징집과 같은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벌칙에도 굴하지 않으며 싸워왔던 것은 그들을 포함한 그들의 후배인 우리들이 더 나은 수련환경에서 양과 질을 모두 갖춘 전문의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전공의 당신이 직접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속적인 관심을 두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들에게 일 순위는 담당하고 있는 환자들이고 그 외에 다른 일에 관심을 두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수련의 과정을 겪고 있기 때

문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글을 통해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 후배 선생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왜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이렇게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련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았으면 한다. 대한민국 전공의 수련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선행된다면, 노조 가입과 활동은 물론이고 국가가 인정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당한 수련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더 많

아지리라 생각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이다. 전공의 노조를 통해 바쁜 수련의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전공의들,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공의들, 그리고 의과대학 후배들이 갈수록 더욱 늘어났으면 한다. 이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며 훌륭한 전문의로 양성되기 위해 올바른 수련환경이 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세상을 간절히 소망한다.

“그렇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